

# '도청별관 분열' 5·18단체 '조문 화해'

##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 각 단체 대표·임원 30명 한자리에 양금 털고 통합의 계기 될지 관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난 빈자리에 '화합과 소통'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로 극심한 분열상을 보여왔던 5·18 기념재단과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가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대립각을 세우던 반목의 관계를 잠시 접고 '5월 고인의 동반자'였던 고인의 빈소를 찾아 슬픔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20일 5월 관련단체에 따르면 각 단체 대표 및 임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문단은 21일 오전 9시 광주를 출발,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국회 광장을 찾아 추모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9일부터 이틀 간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5·18단체들은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를 놓고 최근 1년여동안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합동 조문은 '1980년 5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고인이 대통령 재임 당시 5·18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2002년 7월)시키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2년 1월)하는 등 5·18 민중항쟁 진상규명에 힘써온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 5·18 30주년을 앞두고

통합과 기념행사 준비 등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5·18단체 내부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는 소리가 높다.

5·18 구속부상자회 이춘봉 사무부총장은 "우리를 위해 애써온 분이 가셨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조문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서로 말은 아끼고 있지만 5월 관련단체가 통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 이기봉 총무팀장은 "고인도 5·18 당시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 헌신해온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추모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도 시끄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빈소가 옮겨와 이태로 양금을 털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용광로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휠체어 참배... "영면하소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20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고개 숙여 영면을 기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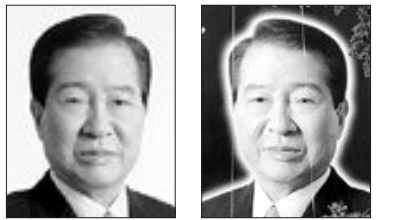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20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고개 숙여 영면을 기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나원침 (7887) 김장두



영정 가르마가 왜 달라요?



일본 사진 뒤바뀐 사진

## 상나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전남지역 분향소에 설치된 영정 사진(왼쪽)과 대형 결계 사진(오른쪽)의 가르마 방향이 서로 달라 '어떤 것이 맞느냐'는 조문객들의 문의가 쇄도.

○20일 민주당과 조문객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 설치된 김 전 대통령 합동분향소 내 영정과 건물 외벽에 내걸린 대형 결계 영정 속의 가르마 방향이 각각 왼쪽·오른쪽으로 달라 혼란을 초래.

○이는 민주당 측이 지난 18일 오후 김 전 대통령의 결계 영정 제작을 맡기는 과정에서 원본을 반전 인화한 사진 파일을 넘겨 발생한 해프닝으로, 분향소 내 영정은 즉시 원본 파일로 교체했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경황 중에 분향소를 설치한 데다 결계 사진은 제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곧바로 교체할 수 없었다"며 양해를 당부.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전남 분향소 끝없는 추모행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인 20일 광주·전남지역에는 조문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國葬)으로 결정되면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과 목포역 광장 등 50곳(광주 15곳, 전남 35곳)의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고인을 애도하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다.

○추모 열기 고조=광주 옛 전남도청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추모 인파로 가득 찼다. 조문객은 옛 광주지방노동청 앞까지 50m 넘게 피리를 물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조문객 수는 2만명으로 추정된다.

또 '노사모' 회원 등 상당수 시민들은 옛 도청 주변에서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근조(謹弔) 리본을 나눠주며 주변 정리를 하는 등 자원봉사에 나섰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정병문 회장을 비롯한 30여개 장애인 단체 회원 200여명은 오전 11시 분향소를 방문, 휠체어에 의지해 헌화했다.

고인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역 광장과 생가인 신안군 하의도(荷衣島) 등

에 마련된 분향소 등에는 이날 하루 동안 1만여 명의 추모 인파가 몰렸다.

○근조 리본 '물결'=옛 도청 분향소 주변 거리는 김 전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근조 리본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조문객들이 추모의 메시지를 적어넣은 가로 3.5cm, 세로 10cm의 근조 리본 수백개는 그의 영면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당신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니다. "우리는 큰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은 국민이 당신의 뜻을 잊지 않을 겁니다", "김 전 대통령의 뜻대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자" 등의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마을인 김해 봉하마을 주민들은 21일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해 조문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弔電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조전(弔電)을 보냈다. 5·18기념재단은 "2001년, 2007년 각각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바실 페르난도(스리랑카) 아시아 인권위원회 상임대표와 레닌 라흐바니쉬(인도) 시민인권감시위원회장이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조전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조전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예도하며 한국 국민을 잔혹한 군사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자 한다"며 "몸소 보여준 희생을 통해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수많은 운동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의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세계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교황 'DJ 구명 편지' 다시 화제

### 80년 신군부 측에 보내 사형 집행 막아 DJ도 광주일보에 친서 공개되자 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고(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5·18 광주민중항쟁 직후 신군부 측에 보낸 '구명 편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당시 목숨을 건진 데는 교황의 편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석 달 전에 알려졌다.

교황의 편지는 지난 5월 18일 광주일보의 첫 보도를 통해 존재가 알려졌다. 신군부에 대한 교황청의 압박이 김 전 대통령의 구명과 직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요한 바오로 2세는 1980년 9월 17일 김 전 대

통령이 '내란 음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구명운동에 나섰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사형선고 석 달여 뒤인 12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당부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1981년 1월 5일 답신을 통해 "(김대중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오직 불법적인 방법과 폭력에 의한 합법 정부의 전복 기도를 포함한 반국가적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전 전 대통령은 "동인에 대한 재판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라고 밝혀 교황의 요청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전 전 대통령이 답신을 보낸 지 불과 18일 뒤 김 전 대통령의 형량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졌다. 교황의 편지가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의 목숨을 구해낸 것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교황의 '구명 편지'가 공개되자 크게 감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박지원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친서의 존재를 접한 뒤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기뻐했다.

한편 천주교 신자인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광민당 총재 자격으로 요한 바오로 2세를 예방했으며,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00년 3월 4일 교황청에서 요한 바오로 2세와 재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 근조의 명복을 빕니다.

光州 郷校

원장	김대중	부원장	김대중
이사장	김대중	부이사장	김대중
사무장	김대중	부사무장	김대중
총무	김대중	부총무	김대중
재무	김대중	부재무	김대중
교육	김대중	부교육	김대중
연구	김대중	부연구	김대중
홍보	김대중	부홍보	김대중
체육	김대중	부체육	김대중
문화	김대중	부문화	김대중
기타	김대중	부기타	김대중